

잃어버린 대학생 2년 ... 답답한 '코로나 학번'

전문대생들 캠퍼스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졸업할 판
4년제 대학도 낭만은 커녕 채용시장 얼어붙어 걱정 태산

#.광주지역 2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A(여·20)씨는 요즘 달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A씨는 9월에 개학하는 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실기수업·현장실습 등 실무능력을 익히기엔 부족한 비대면 수업을 많이 받는데다, 학교를 나갈 일조차 많지 않아 동기 뿐 아니라 선배, 학과 교수님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쌓을 기회도 없었다. 당장 취업정보를 얻고 스펙을 쌓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A씨는 "개학하면 곧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업 정보를 얻을 곳도 없어 불안하다. 2년 대학생활을 허송세월 보낸 것만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입학과 동시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해보지 못한 2020년, 2021년 대학 입학생인 '코로나 학번'들의 불안,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방·스터디카페 등을 캠퍼스 감아 1~2년을 보내면서 대학에서 새롭게 만난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만남 등 대외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군 입대, 취업에 대한 답답함도 커 휴학·반수 등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분위기다.

◇"벌써 2년째지만 학교 건물도 잘 몰라요"-광주 지역 4년제 대학 항공서비스학과에 다니는 B(여·20)씨는 지난해 입학한 코로나 학번이다.

B씨는 2학년인데도, 캠퍼스도 제대로 밟아 보지 못했다. 선배들과의 교류 기회도 많이 줄었는데,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영난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애가 탄다.

B씨는 "고교생 때 기대했던 대학 축제, 동아리활동은 포기한 지 오래"라며 "이제 취업만 바라보고 있는데 선배들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코로나학번 C씨는 지난해 1학기 때 중간·기말고사 때 2차래만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갔다. 나머지 전 반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갈 필요가 없었다. 올해도 전공수업 한 개만 대면 수업으로 이뤄졌다. 100명 넘게 듣는 수업이지만 동기들하고 술 한 잔, 차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교수 얼굴은 더더욱 모른다. 지난해 군대를 가버릴까 생각했지만 복학한 뒤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1년을 버텼는

데 그대로다. 2학년 때는 동아리도 가입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모임이 없어 선배나 동기를 거의 보지 못했다. 이대로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면 선배, 동기, 교수들도 전혀 모르고 신입생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취업 경쟁터로 내몰릴 것 같아 휴학을 고민중이다. 코로나를 피해 군대 간 학생들도 전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오지만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앞둔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지 고민중이다.

◇개학하고 4개월 후면 졸업인데...-3년제 대학 방사선학과 2학년인 D(여·20)씨는 "방사능 촬영 기계 사용법을 온라인 영상사이트 줌(Zoom)으로 익힌 날이 더 많다"고 했다. 현장실습·실기수업으로 1년 내내 배워도 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D씨는 "비대면 수업은 집중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며 "2학기부터는 병원 실습 과정이 포함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실습도 못해보고 졸업하면 현장 대처 능력이 부족한 졸업생을 어느 병원이 뽑겠나"고 하소연했다.

간호, 보건, 사회복지, 보육 전공 등 필수적으로 실습을 받는 게 필요한 전공 과정의 졸업예정자들이 조마조마한 이이다. 올 초만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데 필수적인 실습시간을 채울 실습기관(보건소, 사회복지관 등)들을 찾는 게 여간 어려웠다는 말도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악화된 취업시장에서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졸업생들로 적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58.7%이었던 20~29세의 고용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5.7%로 3%포인트 감소했으며, 올 6월까지 약 5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도 줄지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입 사원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7.3%로,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8.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오후 조선대학교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이 취업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입학과 동시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해보지 못한 2020년 입학생들은 캠퍼스의 낭만은커녕 동아리와 대외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광주시가 2022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균형적인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 대표 도시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핵심 공약 과제로 제안한다. 시민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발굴한 숙원 사업들로, 대통령 후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방소멸위지역 지원제도 마련 등 8개 분야 58개 대선공약 과제를 잠정 발굴하고, 도민 보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기로 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건의할 12대 공약과제 75개 세부사업 1차안을 이날 확정했다.

발굴 공약은 지난 2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약과제 발굴 사전 기획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교수, 유관기관, 광주전남연구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과정 등을 거쳐 구체화 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사회 등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는 지역민이 선호하는 10대 공약과제와 25개 세부사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으며, 각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최우선 3대 핵심 공약과제로 ▲광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중전부지 그린스마트 시티 건설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을 제정, AI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에 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등을 정하고, 반드시 각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또 미래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기반 확대를 위한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송정역 플랫폼타운 건설 및 역세권 복합 개발,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도시모델 구현, 초지능형 헬스케어시티 인프라 마련, 2038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컬처노믹스 융

광주·전남 코로나19 지역감염 급속 확산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 24명(누적 3751명)이 추가됐다.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서구 보험회사 관련 4명, 광산구 주점 2명, 광산구 종교시설 2명, 광산구 호프집 3명이다. 기존 확진자 관련이 2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이 3명이다.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확진자도 8명에 달해 광범위한 지역감염이 우려된다. 최근 확산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최근 1주일간(10~17일) 44명이 늘어 153명(알파 33명·델타 120명)을 기록했다.

20대 대선 공약 과제 확정

- ▲ 광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 ▲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 12대 공약 과제·75개 세부 사업
- 시민 지지 이끌어낼 중요 지표될 것

전남, 8개 분야 58개 공약 8월 말 확정

합도시 실현 등을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2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3편
KIA 투수 김유신 활용법 '오라가력'	▶18편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탕부랭'	▶22편

맘편한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청년의 출발부터 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균형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시민과 함께합니다.

만남

- '광주청년잇다' 소통앱 운영
- '응답하라 2030' 청년동아리 지원

결혼

-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출생

- 출생육아수당 지급
-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등

육아·돌봄

- 24시간 긴급이동돌봄 센터 운영
- 임원아동 돌봄서비스 운영 등

일·생활 균형

-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 휴직대행 수당 지원
- 가족친화 인증 우수 기업 발굴 및 홍보 등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www.광주아이키움.kr (상담전화 062-222-1279/223-1279)